

책에 대한 절대주의자의 동경

임수식의 <책가도>는 감상자들에게 각자 다른 것들이 눈에 띄도록 구성되어 있다. 책의 색깔과 크기와 높이에서부터 책장의 진열 형태 등 사람들마다 상이한 물체에 먼저 시선을 준다. 너무 반듯하거나 단조롭지도 않고, 책들로만 채워져 있지도 않은 <책가도>는, 결국 감상자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을 찾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셀 수 없이 많은 <책가도>의 책들에서 무엇인가를 찾듯,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머금은 것들을 애써 포착하기 마련이다. 그의 <책가도>를 보는 행위는 고이고이 간직한 추억을 떠올리도록 추동하기에 유쾌하게 숨은 그림을 찾는 시간으로 영근다.

우리가 잡념 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줄면서 읽었던 텍스트들은 파편적인 조각처럼 우리의 뇌 속을 활발히 돌아다닌다. 열기설기 합쳐진 얇은 가지들이 거창하게는 지식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채운다. 임수식이 꼼꼼하게 꿰맨 <책가도>는 산발적으로 읽은 책들이 결국 한 인 간을 정립하는 단계를 표상하는 것 같다.

임수식의 책들에는 날개도 있고 지붕도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책가도>는 책에 대한 의인화 시도이기도 하다. 책장에 가로놓인 책들은 장 기간 누워서 잠에 빠져있기도 하고, 고단하다는 듯 기대어 서서 피곤함을 내비치기도 한다. 어떤 책들은 숨 막힐 듯 꽉꽉 붙어사는 반면, 호화스럽게 한적함을 만끽하는 책들도 있다. <책가도>의 책들은 인간 생애의 다양한 단면을 선보인다.

하지만 그의 책들은 결코 조바심을 내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책들은 착하기도 해서 책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인 시디나 파일홀더, 공예품 등과도 어우러진다. 그의 책들은 반짝거리며 현란하게 튀지 않기에 수수한 것들이 온화하게 뿜어내는 빛의 아름다움으로 찬연하게 타오른다. 박제된 새처럼, 필름과 인화지에 재현된 책들은 실체를 왜곡하는 미학적 변신을 감행하면서도, 곳곳에 눈에 띄는 의도된 가짜 다움으로 진실한 감정을 심연으로부터 끌어올린다. 치열한 작가적 의식과 고민이 바로 <책가도>에 아로새겨져 품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 같다.

지식의 세계를 향한 책들 사이의 틈

임수식의 <책가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진가는 책들 사이의 틈이다. 촘촘하게 꽂힌 서재에서 틈은 언제나 신비로운 정조를 자아내며 공간의 입체감을 더한다. 책들이 흠을 판 것 같은 틈은 사진미학을 통해서 지식의 세계에 입성하려는 절대 주의자에게 문이 된다. 그는 부단히 사진을 찍고 책을 헤치며 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짙은 어두움 속을 통과하는 중이다.